

# ‘광주 첨단 3기관’ 기관장 후보자 윤곽

광주TP·광기술원·광산업진흥회  
과기부·중기부 관계자 등 지원  
검증 등 추후 절차 거쳐 최종 선임

하마평이 무성했던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이른바 광주 ‘첨단 3기관’의 차기 기관장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

고 있다. 광주TP와 광기술원이 지난주 차기 기관장 공모를 끝냈으며 광산업진흥회도 오는 10월 내 차기 상근부회장 공모를 진행한다. 이로써 광주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관의 수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9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4일 김선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8월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제 10대 원장 초빙 공고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3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학 고위급 임직원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응모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는 주중 서류 전형 등을 통해 후보를 압축한 뒤 면접을 거쳐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공개 검증, 이사회 선임 의결, 중소기업부장관 승인 등 인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오는 11월 10일 현 신용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광기술원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차기 원장 공모를 마쳤다. 응모자가 1인 이하일 경우 7일간 공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현 원장과 광주 소재 대학교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다수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정은 내부 조율 중이며, 한국광기술원 원장추천위원회 등이 비공개 내부 절차에 따라 차기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광기술원 원장 임

기는 3년이다. 지난 7월 조용진 전 상근부회장이 3연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공석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현재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 정기총회가 진행 중이다. 이달 정기총회를 마치고 오는 10월에 공모를 시작, 11월에 선임될 예정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차기 상근부회장에는 전 대학교수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3년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광주·전남·전북지역산업평가단을 통합해 출범한 ‘호남지역사업평가원’ 초대 원장으로 재임하며 지역사업 발굴·유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단임 3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홍승현 기자



19일 이마트 광주점 피코크 코너에서 한 시민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광주점 제공

## 이마트 피코크 상품, 변화의 바람 분다

세분·고급화된 고객 취향 반영  
웰빙열풍...건강식품 개발 몰두

이마트 PL(자체 라벨) 브랜드인 피코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대중성, 필수구색에 초점을 맞춘 상품 개발에서 세분화, 고급화된 고객 취향을 반영한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건강관리, 올바른 영양섭취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일반식품도 건강하게 섭취하려는 수요가 늘자 이마트 피코크는 관련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정제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글루텐프리 쿠키’의 9월(1~15일)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늘었고, 혈당관리나 키토제닉 식

을 위한 ‘무설탕 초콜릿·캔디’ 매출도 25% 성장했다. 이에 과거 대중적으로 수요가 높은 한식·중식·양식·분식 등 간편가정식 위주 제품에서, 현재는 맛집 콜라보 밀키트, 냉동 디저트 등 고품질 외식 메뉴를 비롯해 1~2인 소용량 상품, 에어프라이어 전용상품 등 변화된 소비 문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피코크는 2018년 유기농 라인 ‘피코크 올가닉’을 시작으로 매년 건강 카테고리 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저칼로리·저나트륨·저지방·글루텐프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80여종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프로틴, 비건 신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피코크 프로틴 아이스크림 2종(바닐라, 초코

/474ml)은 우유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분리유 단백을 사용해 1통 당 단백질 38g을 함유했으며 에리스리톨 등 대체당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산 우유, 천연 바닐라농축향 및 코코아분말을 활용해 진하고 고소한 맛을 냈다. 피코크 조선히멜 비건김치(400g)는 동물성 원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대신 채수, 효소처리 스테비아 등을 조합, 감칠맛을 구현하고 한국 비건인증원의 인증까지 받은 상품이다. 이와 함께 피코크 대표 카테고리인 국·탕류 나트륨 저감작업도 진행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건강한 일반식을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건강 카테고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마트 김진범 피코크 개발팀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관리가 일상화되면서 식재료, 식단을 건강하게 챙기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코크는 변화하는 식문화에 따라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8월 지역 무역수지 ‘불안한 흑자’ 유지

전국 역대 최대 적자 기록

전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인 가운데 광주·전남 흑자 폭은 소폭 증가하는 등 불안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의 ‘2022년 8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수출은 전년동기비 19.5% 증가한 61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전년동기비 39.6% 증가한 59억6,000만 달러로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 적자인 94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남의 무역적자가 다소 개선돼 7,000만 달러 적자, 광주는 5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달 무역수지 흑자 규모(2억9,000만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11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흑자 기초 유지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한 15억5,500만달러, 수입은 38.6% 증가한 9억8,300만달러로 나타났다. 냉장고,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 품목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60.5%, 44.2%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이끌었고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59.9%, 트랜지스터 1,108.5%,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는 302.0%씩 크게 증가했다. 전남 수출은 46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

비 17.9% 상승했고 수입은 39.8% 증가한 4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단가 하락에도 물량 확대로 8월에만 110% 올라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황 악화 및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유휴 제품 자급률 제고 기조 등으로 인해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줄었다.주요 감소 품목은 중간원료, 합성수지 등으로 각각 45.6%·20.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중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프랑스 화장품 통관으로 수출이 늘어 난데 더해 제트유·윤활유 등 석유제품 수출까지 확대되면서 8월 수출은 3,000%이상 증가했다. /홍승현 기자

## 내달 전기·가스요금 ‘예고분+α’ 예정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

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조8,000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SNS 글에서 “가스공사가 원가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인데 최소한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기아, ‘The 2023 EV6’ 출시

안전장치 트림 기본화  
빠른 충전·긴 주행거리

기아는 19일부터 전용 전기차 EV6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3 EV6’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기아 제공

기아는 19일부터 전기차 EV6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3 EV6’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The 2023 EV6’는 고객 선호 편의·안전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하고 신규 디자인 사양을 운영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트림에 후측방레이더를 기본 탑재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을 추가하고 ▲전방 주차 거리 경고를 적용해 주행 및 주·정차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고객 선호 편의 사양인 ▲스마트폰 무선충전시스템 ▲전자식 차일드락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ECM) ▲레인 센서 ▲러기지 파워아웃렛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최상위 트림인 ‘어스(Earth)’와 ‘GT-Line’에는 메탈 풋페스트를 신규 적용해 디자인 고급감을 강화하고, 기존 옵션으로 제공되던 실외 V2L 커넥터를 기본화했다.

또한 신규 내장 색상으로 딥 그린을 추가하고 기존 어스 트림의 브라운 인테리어나 적용됐던 블랙 스티어링 휠을 브라운 투톤으로 변경해 고급감을 더했다. ‘GT-Line’ 트림에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전용 나파 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했으며 스웨이드 시트와 내장재를 포함한 ‘스웨이드 컬렉션’을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고객들의 선택 폭 확장에도 나섰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에는 신규 트림인 ‘라이트(Light)’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에어 트림 이상 모델에 2열 이중 접합 차음유리를 신규로 기본 적용해 후석 소음과 진동을 개선했다. 기아 관계자는 “EV6는 기아 최초로 E-GMP 플랫폼을 적용한 모델로, 경쟁사 대비 빠른 충전 속도와 긴 주행거리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The 2023 EV6는 고객들의 높은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